

제12대 한국체육정책학회 회장 후보 출마 소견서

안녕하십니까, 한국체육정책학회 회원 여러분.

본 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남서울대학교 김수현 입니다. 우리 학회는 1998년 창립 이후 30년을 바라보는 역사 속에서 전임 회장님들의 헌신과 회원 여러분의 열정으로 체육정책 분야를 선도하는 학회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제 저는 그 전통과 성과를 바탕으로, **융합과 포용사회의 가치를 실현하는 학문공동체로서 한국체육정책학회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고자 제12대 회장 후보로 출마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체육정책학회의 **미래 발전 방향과 실천 의지**를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융합과 포용사회를 선도하는 체육학계의 대표 학술단체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우리 학회는 다양한 체육 전공자들이 함께하는 학문공동체입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다양성이 학회의 정체성을 흐릴 수 있다고 보기도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것이 우리 학회의 가장 큰 잠재력이자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전공의 회원들이 지향하는 연구는 서로 다르지만, 각 전공 분야가 나아갈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면 그 자체가 체육정책의 출발점이자 의미 있는 성과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전공이 모여 있기에 다각적 시각에서 정책을 제안하고 풍부한 해석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이 바로 우리 학회의 중요한 장점입니다. 즉, 전문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융합과 통섭을 실현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는 학문공동체, 그것이 바로 우리 학회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융합과 통섭의 조화를 기반으로, 포용사회의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학문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대학과 전공 분야에서 신규 회원을 적극 확보하여 학회의 양적 성장과 질적 내실을 동시에 도모하겠습니다.

둘째, 체육정책학의 학문적 정체성과 지식기반을 확립하겠습니다.

체육정책학은 체육 현장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 실천적인 대안과 제도적 개선 방안을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아직 그 개념과 연구방법,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합니다. 이에 저는 ‘**체육정책학이 무엇이며, 왜 필요하고, 어떻게 연구해야 하는가**’에 대한 학문적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회원들의 연구역량과 실무 경험

을 결집하여 「체육정책학 개론서」를 집필함으로써, 우리 학회의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보다 많은 연구자와 학생들이 체육정책학에 쉽게 입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대학의 체육계열 학과에서 체육정책학 교과목이 개설·운영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홍보하여 학회의 학문적 외연을 확장하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 학회 회원들이 교육 현장에 직접 출강하여 학문적 성과를 실천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체육 전공자의 권익 신장과 취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스포츠지도사 및 건강운동관리사 등 체육지도자 국가자격 제도는 체육 전공자들에 대한 우대사항이 미흡하며,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 중인 스포츠경영관리사 역시 실효성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비단 이러한 자격 제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체육 전공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한 현실입니다. 우리 학회는 유관 체육단체와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학술대회와 세미나를 개최하여, 체육 전공자의 권익 신장을 위한 실천적 논의와 협력의 장을 만들어가겠습니다.

한편, 체육 전공자들이 희망하는 직업 중에는 체육기관, 종목단체, 지자체 체육회 등의 행정직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만, 이를 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보와 체계적인 교육 기회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학회는 회원들의 인프라와 유관 체육단체와의 협약을 바탕으로 학회 차원의 「스포츠행정가 프로그램(Sport Administrator Program)」을 개발·운영하여, 체육 전공자들의 취업역량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함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한국체육정책학회는 체육학의 가치와 정책의 방향을 함께 설계하는 학문공동체입니다. 저는 회원 여러분과 함께 **융합과 포용사회를 선도하는 체육학계의 대표 학술단체로 발전시키고, 학문적 정체성 확립과 체육 전공자 권익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이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학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댁내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0월 31일

김수현 올림